

20
18

두산연강예술상



20
18

두산연강예술상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초대회장 연강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2010년에 만든 두산연강예술상, 올해 아홉 번째 수상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재능 있는 창작자들에게
두산연강예술상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상은 지금까지의 작업에 대한 인정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응원이기도 합니다.
이 상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수상자들의
예술세계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만들어가는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두산의 의무이자 지속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 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산의 오래된 철학이 담긴 두산연강예술상,
수상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제정의 뜻

두산연강예술상은 두산그룹 창업의 초석을 다지고 인재양성에 힘써온 연강(蓮崗) 박두병 초대회장의 뜻을 이어 공연·미술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한 상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이 미래라고 생각하는 두산의 의지와 생각을 담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후보자 자격

공연·미술 부문에서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는 만 40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예술가

선정과정

심사위원 선정 → 후보 추천 및 심사 → 수상자 확정

상금 및 부상

공연부문

수상자 1명
상금 3천만 원
신작 공연 제작 지원
아티스트 멘토링 제공
작품 워크숍, 세미나

미술부문

수상자 1명
상금 3천만 원
두산갤러리 서울 전시(2019년 하반기)
두산갤러리 뉴욕 전시(2020년 상반기)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
(2020년 상반기, 스튜디오/거주 공간/항공권/생활비 제공)
아티스트 프로모션 및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지원

2018 제 9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공연부문 김정

심사위원 김미도 (연극평론가)

김재엽 (연출가)

이경미 (연극평론가)



김정

프로젝트 내친김에 연출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수상
2017 제54회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 <손님들>

경력
2018 연극 <처의 감각> 연출
2017 연극 <손님들> 연출
연극 <임영준햄릿> 공동연출
연극 <순진한햄릿> 연출
2016 연극 <광장의 왕> 연출
연극 <꿈> 연출
2015 연극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 연출



2015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



2016 「광장의 왕」



2016 「광장의 왕」



2017 「손님들」



2017 「임영준햄릿」



2018 「처의 감각」

공연부문 심사평

올해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를 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최근 40세 이하의 젊은 작가, 연출가들의 공연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작품의 완성도 여부를 떠나 향후 지속적으로 주목해 볼 만큼 기대를 갖게 하는 연극인들이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또한 몇 년 전까지 뛰어난 작업을 보여주었음에도 최근에는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는 연극인들이 많았다. 물론 이것은 그 개인의 문제보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어려운 우리 연극계의 환경 문제라는 점에서 한편으로 우려가 앞서기도 했다.

비록 후보군은 빈약했지만 김정을 2018년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로 결정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그는 고전 희곡부터 번역극, 그리고 국내 작가의 창작극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분석과 창의적인 해석을 통해 텍스트를 연극적으로 재탄생시키는 힘을 갖추고 있다. 그는 무대형상화 과정에 있어 희곡을 중심에 두고 배우들을 이 희곡의 인물과 사건 안으로 몰아넣기보다는 역으로 배우들 각각이 가진 고유한 개성들을 최대한 끌어내어 이를 바탕으로 희곡의 인물과 상황에 접근한다. 이로써 김정의 연극은 재현과 현존이라는 두 개의 축 가운데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짐 없이 양쪽을 긴장감 있게 오가며 독특하고도 역동적인 리듬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리듬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배우의 연기뿐 아니라 음향과 조명 등 다른 매체들이 기여하는 바도 크다. 음악과 빛의 독특하면서도 적절한 배치는 신화와 역사, 꿈의 공간을 유희하며 유평하는 김정 연극의 무대를 시각적으로뿐 아니라 청각적으로 늘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김정은 이러한 시청각적 이미지 안에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의 연결고리를 빼놓지 않고 슬며시 끼워 넣음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무대 안 '저기'가 아닌 '여기'의 삶을 함께 성찰하게 해준다. 김정이 소극장 무대뿐만 아니라 중극장 이상의 공간에서도 주목 받는 작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 수상을 많이 한 상태에서 또 하나의 영예가 얻어지는 것이 그에게 독이 되거나 짐이 될까 걱정스런 점도 없지 않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그의 작업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았던 작품들이 특정 작가와의

작업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 역시 아쉽다. 이것은 그가 연출가로서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안정된 무대화의 가능성을 구축하는 바탕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젊은 연출가로서 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놓아버릴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작업 안에는 이미 그가 연출가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번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이 김정 스스로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작업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자기 안의 잠재된 동력을 발견해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구축해 나가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김정이 지금까지 연극 창작과정에 임하면서 보여준 특유의 성실하고 집요한 연출 접근법을 통해 더욱 개성이 뚜렷한 연출세계를 구축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심사위원 김미도 김재엽 이경미

2018 제 9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미술부문 이윤이

심사위원 김성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방혜진 (미술평론가)
안소현 (아트스페이스 풀 디렉터)



이윤이

2012 헌터컬리지 통합매체 석사, 뉴욕, 미국
2009 헌터컬리지 미술학부 학사, 뉴욕, 미국
2003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졸업,
서울, 한국

개인전

2018 *내담자*, 아트선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한국
2014 *두 번 반 매어진*, 인사미술공간, 서울, 한국

단체전

2017 *러브 스토리*, 아마도 예술공간, 서울, 한국
2016 *푸쉬, 풀, 드래그*,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서울, 한국
유명한 무명, 국제갤러리, 서울, 한국
헤드론 저장소, 교역소, 서울, 한국
2015 *여기라는 신호*, 갤러리 팩토리, 서울, 한국
2014 *Upon The Skin*, 49B Studios, 뉴욕, 미국
2013 *Optic Nerve 15*, 북 마이애미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플로리다, 미국
Facts and Fictions, 인비저블 독 아트센터, 뉴욕, 미국
2012 *VOX VIII:연년 신진 작가전*, 박스 파퓰라이 갤러리, 필라델피아, 미국



내담자 CLIENT 2018, Installation view of 2018 Art Sonje Project #3



메아리 Hearts echo like mercury 2016, HD video, color, sound, 19min 13sec

미술부문 심사평

동시대 미술 작가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영상 작가라면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이윤이 작가를 올해의 두산연강 예술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윤이의 행보는 모두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종류의 것은 아닐지 모른다. 그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미묘한 풍경의 전이를 응시해야 한다. 이러한 '뒤로 물러섬'은 몇 겹의 의미를 갖는다. 우선 그가 다루는 주제, 그가 이끌어내는 감정의 울림과 서정성은 상당히 사적이고 시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관객 역시 자신의 내밀한 경험을 일깨우도록 물러날 필요가 있다. 한편, 그가 주로 영상을 다루긴 하지만, 동시대 영상 경향과 달리 매체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탐닉이나 매몰에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도 이 물러남의 한 특징이다. 나아가, 그의 작품을 영상으로만 한정시키는 것은 대단히 편협한 감상법일 수 있는데 이러한 지점 역시 '뒤로 물러섬'의 물리적 필요를 강변한다.

오늘날 미술에서 매체에 대한 숙련도와 감각은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 받는가. 미술 작가가 여러 매체를 동시에 사용하는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도리어 해당 매체들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다루느냐의 기본 능력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이윤이 작가의 경우, 음악 및 텍스트로 정서를 이끌어가는 감수성과 퍼포먼스의 탁월한 감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영상을 다시 오브제 설치로, 이질적 무대로 변주하고 조음시키는 능력이 고루 섬세하며 두루 조화롭다.

무엇보다 이 조음과 조화의 감각은 안온한 자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세계를 둘러싼 궁극적 균열과 파국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다. 주제의 측면에서 지나치게 개인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여성의 신체 및 내면의 탐구가 정치적, 사회적 거대 이슈

에 비해 간과되어야 할 대상인 것은 아니며, 또한 최근 개인전에서 타인들과 사물들을 통해 기묘하게 치환되고 확장되는 세계를 보여준 것도 작가가 앞으로 펼쳐나갈 불안하고 불온한 시각을 기대하게 만든다.

심사위원 김성원 방혜진 안소현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2010년-2017년)

공연부문

- | | | |
|------|-------------------------------------------------------------------------------------|---------------------------------------------------------------------------------------------------------------|
| 2017 |  | 이연주 작가/연출
〈오마르〉, 〈아무도 아닌〉, 〈전화벨이 울린다〉
〈이반검열〉, 〈삼풍백화점〉 |
| 2016 |  | 구자혜 작가/연출
〈타즈매니아 타이거〉, 〈commercial, definitely: 마카다미아, 검열, 사과 그리고 맨스플레인〉
〈디스 디스토피아〉, 〈모래의 여자〉 |
| 2015 |  | 이지람 국악창작자
〈이방인의 노래〉, 〈추물/살인〉
〈억척가〉, 〈사천가〉 |
| 2014 |  | 이경성 연출
〈워킹 홀리데이〉, 〈비포 애프터〉
〈서울연습 - 모델, 하우스〉
〈남산 도큐멘타: 연극의 연습 - 극장편〉
〈몇 가지 방식의 대화들〉 |
| 2013 |  | 성기웅 작가/연출
〈20세기 건담기建談記〉, 〈신모험왕〉
〈가모메〉, 〈소설가 구보씨의 1일〉
〈과학하는 마음 3부작 - 발칸동물원편〉 |
| 2012 |  | 김은성 작가
〈썬샤인의 전사들〉, 〈함익〉, 〈빨〉
〈목란언니〉, 〈연변엄마〉, 〈시동라사〉 |
| 2011 |  | 윤한솔 연출
〈인터넷 이즈 씨리우스 비즈니스〉
〈1984〉, 〈두뇌 수술〉, 〈나는 기쁘다〉
〈의붓기억 - 억압된 것의 귀환〉
〈빈커가 없으면 나는 너무 외로워〉 |
| 2010 |  | 김낙형 작가/연출
〈맥베드〉, 〈지상의 모든 밤들〉
〈별이 쏟아지다〉, 〈나의 교실〉 |

미술부문

- | | | | | |
|------|---------------------------------------------------------------------------------------|------------|---------------------------------------------------------------------------------------|---------------------------------------------------------------------------------------|
| 2017 |  | 권하윤 | | |
| 2016 |  | 김희천 |  |  |
| 2015 |  | 강정석 |  |  |
| 2014 |  | 강동주 |  |  |
| 2013 |  | 김민애 |  |  |
| 2012 |  | 김상돈 |  |  |
| 2011 |  | 박주연 |  |  |
| 2010 |  | 구동희 |  |  |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두산아트센터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 encourages and supports young artists and
their innovative endeavours

YONKANG
Hall

연강홀

1993년 두산 창업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연강(蓮崗) 박두병 회장의 생가터에 지은 연강홀. 2007년 리노베이션을 거치면서 620석 규모의 중극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Space
111

Space111

두산 창립 111주년을 기념해 문을 연 Space111.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DOOSAN
Gallery

두산갤러리

두산갤러리는 비영리 갤러리로서 2007년 서울에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작가들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현대미술의 중심지인 뉴욕 첼시에 갤러리와 레지던시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미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큐레이터 워크샵과 미술강좌 등을 통하여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산갤러리 뉴욕

두산갤러리 뉴욕은 한국 최초로 뉴욕 주정부와 교육청의 정식인가를 받고 2009년 뉴욕 첼시에 설립된 비영리 갤러리로서 한국 현대미술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33 West 25th Street, New York, NY 10001

두산레지던시 뉴욕

두산레지던시 뉴욕은 국제적 수준의 작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미술 작가들에게 뉴욕 첼시에 있는 작업실과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레지던시 입주 작가에게는 개인전뿐만 아니라 현지 전문가 및 미술애호가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48 West 28th Street, Suite #231, New York, NY 10001

입주작가 2018 기술기 김희천 박광수 배윤환 이호인
2017 권용주 오민 윤향로 장파 최수양
2016 강동주 박재영 안정주 유현경 이윤성 이은실
2015 김민애 김영나 백정기 이혜인 정지현 차재민
2014 김상돈 김지은 장보윤 장지아 전소정 이완
2013 박주연 문성식 유승호 이소정 이재이 합진
2012 구동희 김시연 박미나 박세진 이지현 정희승
2011 김기라 김인배 민성식 박윤영 이동욱 이주요
2010 권오상 김인숙 백승우 성낙희 홍경택
2009 이형구 정수진 최우람



두산갤러리 뉴욕



두산레지던시 뉴욕

두산아트센터 2018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창작자 지원

DAC 아티스트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선정하여 창작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원합니다.

두산아트랩

쇼케이스, 독회, 워크숍 등 다양한 형식으로 만 40세 이하 예술가들의 새로운 실험을 지원합니다.

두산레지던시 뉴욕

두산레지던시 뉴욕은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에게 6개월 동안 뉴욕 첼시 지역에 위치한 독립된 작업실과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은 한국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신진 큐레이터를 발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연강예술상

인재양성에 힘쓴 두산 초대회장 연강 박두병 선생의 뜻을 이어 2010년에 제정했으며, 미술과 공연 분야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만 40세 이하 예술가들을 지원합니다.



협오스런 마초코의 일생 뮤지컬 17.10.27~1.7
 원작 아마다 무네키 작/연출 김민정
미저리 Misery 연극 2.9~4.15
 작 윌리엄 골드먼 연출 황인뢰
하이젠버그 Heisenberg 연극 4.24~5.20
 작 사이먼 스티븐스 연출 김민정
일앤다웁스 뮤지컬 콘서트 5.27~6.8
국경의 남쪽 창작가무극 6.29~7.15
 극본 정영 작곡 이나오 연출 반봉기
더 데빌 뮤지컬 11.7~19.3.17
 작/연출 이지나 작곡 우디 박, 이지혜



두산갤러리 서울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기획전 :
 우리는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1.24~2.24
 장파 개인전 3.14~4.18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
 THE SHOW MUST GO ON 5.2~6.20
 권용주 개인전 7.4~8.11
 임영주 개인전 8.22~9.19
 권하운 개인전 10.10~11.7
 전시기획 공모 선정작 11.21~12.19



교육 프로그램
 두산인문극장 2018: 이타주의자 4.9~6.18
 두산아트스쿨 2.22~3.29, 9.6~10.11
 두산청소소년아트스쿨 7.7~8.4
 두산아트센터 투어 매월 마지막 목요일



Doosan Art LAB
척하면 척 무용 1.4~1.6
 안무/연출 남현우
종이인간 연극 1.11~1.13
 작 서민준 연출 신진호
폰크툼 퍼포밍아트 1.18~1.20
 작/연출/출연 EG
방울목 프로젝트 전통음악 1.25~1.27
 작/연출/출연 김희영
의자, 눈동자, 눈먼 예언자 연극 2.1~2.3
 재구성/연출 송아원 시각각설치 김한결
영적인 탐구 여행사(靈) 다면 2.8~2.10
 구성/연출 허나영

전화벨이 울린다 연극 3.20~4.1
 작/연출 이연주

두산인문극장 2018: 이타주의자
낫심 NASSIM 연극 4.10~4.29
 작/출연 낫심 솔리만푸어
피와 씨앗 GRAIN IN THE BLOOD 연극 5.8~6.2
 작 톰 드러먼드 연출 전인철
애도하는 사람 悼亡人 연극 6.12~7.7
 원작 텐도 아라타 각본 오오모리 스미오 연출 김재업

DAC Artist

이갈리아의 딸들 연극 7.19~7.21
 각색/연출 김수정 원작 게르트 브란트베르크
임영준 햄릿 연극 8.3~8.11
 작 김정 박정호 임영준 허수민 연출 김정 허수민
비평가 The Critic 연극 8.17~9.1
 작 후안 마요르가 연출 이영석

DAC Artist

동초제 춘향가-몽중인 판소리 9.12~9.20
 작/작창/연출/출연 이승희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연극 10.5~10.27
 작 윤성호 연출 전진모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신작


러브 스토리 연극 11.6~11.24
 연출 이경성

내게 빛나는 모든 것
Every Brilliant Thing 연극 12.1~12.25
 작 런던 맥밀란 연출 오경택




석탄, 석유, 가스...

지금의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은 영원할 수 없기에
두산은 무한한 바람과 수소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험준한 산, 대농장...

사람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기에
두산은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 기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닷물 97%, 빙하 2%, 마실 수 있는 물 1%...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은 매우 부족하기에
두산은 비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서 첨단 건설 장비, 해수담수화 기술까지

두산은 세계 최고의 인프라 산업기술로

지구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